

## 제 3 절 6월 민주항쟁

전국적으로 볼 때, 6·10 대회로부터 6·29 선언까지의 과정은 크게 3단계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제1단계는 6·10대회로부터 6월 18일 “최루탄 추방 결의 대회” 이전까지라 할 수 있다. 6월 10일은 당시의 상황을 상징하듯, 국민대회와 ‘민정당 제4차 전당대회 및 대통령 후보 지명대회’가 같이 개최되던 날이었다. 잠실 체육관에서는 전두환과 노태우가 손을 맞잡고 호헌을 외치고 있었고, 반면 전국 각지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열기가 분출하고 있었다. 국민대회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 아래 전국 22개 지역에서 24만여 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전개되었다. 이 와중에서 시위를 저지 하던 경찰력의 한계가 노출되는 양상까지 드러났다. 이어 15일까지 전개된 명동 성당의 농성은 시위의 열기를 지속시키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민정당은 한편으로는 강경 진압정책을 고수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15일에 4당 대표회의와 여야 영수회담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6·10 관련 구속자 석방, 김대중씨 연금 해제, 민정당의 일방적인 정치 일정 백지화 등을 전제 조건으로 여야 영수의 실질적인 대화를 요구하였다. 한편 미국 국무장관 솔츠는 17일 여야간의 대화 재개와 시위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화 모색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시위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자, 민정당은 18일 노태우-김영삼 회담의 무조건 추진을 강조하고, 4·13을 유지하는 선상에서 개헌 논의의 재개를 허용할 의사를 밝혔다.

6월 민주항쟁의 제2단계는 18일 “최루탄 추방 결의 대회”로 부터 6월 26일 “국민 평화 대행진”까지의 기간이다. 18일 대회에는 전국 16개 지역에서 50여만 명이 참여하였고, 특히 부산에서는 30~40여만 명이 참여하여 경찰이 진압을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경찰력이 부족한 중소도시에서는 경찰이 시위를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군대를 투입하든지 아니면 대폭적인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 양자선택의 기로에 처하였다. 민주당은 20일 4·13 조치의 철회와 영수 회담 개최를 재촉하였고, 같은 날 국민운동본부는 4·13 조치의 철회, 양심수 석방, 집회·시위·언론의 자유 보장, 최루탄 사용 중지 등 4개항을 정부에 촉구하였다. 24일에는 전두환-김영삼의 청와대 회담이 이루어졌으나 4·13 조치의 철회만이 확인 되었을 뿐, 김영삼이 요구한 선택적 국민투표와 직선제 개헌은 분명하게 수용되지 않아 회담은 결렬되었다.

6월 민주항쟁의 제 3단계는 26일 “국민 평화 대행진”에서 6·29 선언까지의

기간이다. 5공화국이 4·13 조치의 철회와 개헌 논의의 재개라는 부분적인 양보안을 제시했으나 국민 운동 본부와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는 가운데 개최된 26일 대회는 이제까지의 범국민 투쟁을 총결산하는 대규모 투쟁으로 전개되었다. 이 대회에는 전국 34개 시와 4개 군에서 140여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였다. 이 같은 민중들의 대규모 투쟁에 마침내 5공화국 전두환 군부독재정권은 “6·29 선언”을 통하여 일단 굴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29일에 전격적으로 발표된 6·29 선언에서 노태우는 ‘대통령 직선제 수용’, ‘대통령 선거법 개정’, ‘김대중씨 사면 복권 및 극소수를 제외한 시국 관련 사법 석방’, ‘국민 기본권 신장’, ‘언론 자유 창달’, ‘지방 자치제 실시와 대학의 자율화’,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 ‘과감한 사회 정화 조치’ 등 8개항을 약속했다.

이상과 같은 전국적인 상황의 단계적 구분은 부산지역에서도 대동소이하게 적용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부산이 전국의 어느 지역보다도 광범위하고도 조직적이며, 가열찬 투쟁을 전개하였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기억해야 할 것이다. 부마 민주항쟁의 요람으로서 그리고 오랜 기간 반 독재 민주화 운동의 거점으로서 부산의 찬연한 위상과 역할이 돋보이는 시기였다.

부산의 6월 민주항쟁은 전국적인 투쟁의 단초를 이끌어내는 선구적 과감성과 지도력을 보여 주었다. 박종철군의 고문치사로 시작된 6월 민주항쟁을 “2·7 추도 대회”와 “3·3 평화대행진” 그리고 “4·13 호헌조치” 및 6월 10일 ‘박종철군 고문살인 은폐 규탄 및 호헌철폐 부산 시민대회’에서부터 6·29 선언까지의 20일간을 중심으로 추적하여 보기로 하자.

## 1. 6월 민주항쟁의 점화

## 1) 2·7 추도대회

부산시경은 6일 밤 신민당 제1지구당을 급습하여 전단 2천 2백 50장과 확성기 2개, 앰프1개를 압수했다. 동시에 시 전역에서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208명을 연행하므로써 공포감을 조성하였다. 마치 1980년 5월 18일 전야같은 을씨년스런 분위기였다. 평소 공안당국에서 감시하던 부민협 사무국장 김재규(40), 부산대 1986년 씨클연합회 회장 이명곤(23. 부산대 중어중문학과4), 신민당 제1지구당 사무소장 최천기(55)등 70명에게 가택연금령이 내려졌다. 오전 7시부터 중구 광복동에서 부평동 파출소까지와 창선파출소에서 미문화원에 이르는 도로변의 주차를 일체 금지시키고, 미문화원을 중심으로 시내버스 정류소 4개소, 남포동 일대 시내버스 3개소 등 상오 7시부터 정류소를 폐쇄시켰다. 대청로, 남포동, 광복동의 택시 승강장도 폐쇄하고 도로의 행인 및 차량통행도 전면 금지시켰으며, 소방차 3대, 가스차 4대를 대기, 18곳에 바리케

이드를 쳤다. 이런 조치로 인하여 신창동 유나백화점과 새부산상가, 국제시장 등 500여 개의 점포가 철시하였다. 경찰은 어떤 형태의 집단적 시위도 철저히 원천 봉쇄하고자 시도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철저히 봉쇄당한 공포의 거리도 부산시민들의 끓어오르는 분노와 과감한 투쟁정신을 막지는 못했다. 낮 12시 30분께 검은 리본을 단 신민당 청년당원들이 광복동 미화당 앞에서 대각사로 들어 가려다 경찰이 제지하자 맞고함을 치며 물러났고, 20분 후에는 당원과 학생 수백 명이 대각사로 들어 가려다 제지 당하자 심한 몸싸움을 벌였다. 경찰은 저지선을 뚫으려는 시위대들을 향해 사과탄과 다연발탄(일명 지랄탄)을 마구 쏘았다. 이 순간 길을 지나가던 재일동포 김우근씨(63. 일본 오사카거주)가 사과탄 파편에 맞아 전치 10일의 부상을 입기도 하였다. 하오 1시 20분 경에는 창선동 국민은행 부산지점 앞에서 수백 명의 대학생 시위대가 경찰과 대치하였다. 학생들은 최루탄을 난사하는 경찰에 밀려 도망다니면서도 ‘종철이를 살려내라’는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반정부구호를 외쳤다. ‘애국 부산 시민에게 드리는 글’ ‘누가 이 젊은이를 살해했는가’라는 유인물을 뿌리며 학생들은 시청쪽으로 행진하면서 남포파출소에 투석을 하기도 했다.<sup>40)</sup>

하오 1시55분 부민협 회원인 송기인 신부, 노무현 변호사, 김광일 변호사, 김재규 사무국장, 고호석 사무차장 등의 재야인사, 민주단체, 신민당원, 구속자가족 30여명이 남포동 부산극장 앞에서 초조하게 오후 2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대각사 주변으로 몰려다니며 경찰과 산발적 충돌을 벌였던 시위군중들이 2시경 집결지인 부산극장 앞으로 몰려와 300여명이 집결했다.

오후 2시 이날 디머(시위주동자)의 역할을 맡기로 예정되었던 부민협 김재규 사무국장이 핸드마이크를 들고 나타나 “도대체 죽은 사람 추모제도 못하게 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제부터 여기에서 박종철의 추도식을 거행하겠다”고 운을 뗀 뒤 폭압적인 군사고문정권을 맹비난하였다. 연설 중간 중간마다 박수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애국가’, ‘타는 목마름으로’ 등의 노래를 부르면서 군중들은 분위기를 뜨겁게 만들기 시작하였다. 뒤이어 노무현, 김광일 변호사가 등단하여 연설을 할 때, 뒤늦게 출동한 경찰이 허겁지겁 최루탄을 마구 쏘아대며 추모 집회를 해산하고자 하였다. 최루탄이 발사되자 추도객들은 즉각 시위대열로 바뀌었다. 시위대가 ‘독재타도’, ‘고문추방’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제일극장을 돌아 국제시장 쪽으로 진출하자 도로연변에서 구경을 하고 있던 시민들은 자석에 끌린 듯 자연스럽게 시위대열에 동참하였다. 기껏 박수나 쳐주고 방관만 하던 과거와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었다. 시민들도 깊이 분노하고 있었던 것이다. 바다로 흘러가는 강물이 넓고 깊어지듯이 시위대열은 움직일수록 급속도로 불어났다. 만여 명이나 되는 시위군중이 충무로에서 시청으로 이어진 간선도로를 꼭 메웠다. 그러나 당시의 신문을 아무리 꼼꼼히 살펴봐도 군중의 수가

40) 부산민주항쟁 기념사업회, 《6월항쟁(항쟁일지)》, 유월자료, 1995, p.45.

나오지 않는다. 최고로 모인 사람들의 수가 ‘700명’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축소 보도 밖에는 없었다.

당시 부민협의 사무차장이었고 이후 국본 사무국장을 맡았던 고호석씨 증언을 들어보자.

“2.7대회 준비시 예상 밖으로 큰 반응이 있었다. 김재규 부민협 사무국장이 디머(시위주동자)였다. 대각사 주변을 봉쇄했으나 주변의 사람들이 많았다. 부산극장 앞에서 디머의 개최선언과 동시에 5분 정도 지나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이어 김광일, 노무현 변호사가 연설을 하자 전경들이 최루탄을 난사하여 사람들이 흩어졌다. 추모대열은 극장가 쪽에서 국제시장으로 들어가 시청앞을 돌면서 흩어졌는데 오후가 되자 시위대열은 만여명으로 불어났다. 부마 민주항쟁 이후 최대의 시위군중이었다.”

당시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2천여 명이 간선도로를 꼭 메우고 시위를 벌였으며, 저녁까지 시위에 참가한 사람은 2만명이 넘었다’고 증언한다. 부산극장 앞의 추도대회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미리 재야 종교단체와 학생운동, 노동운동 단체에서 집회장소와 연설자를 정하고 조직적인 준비를 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2.7을 계획하고 준비한 사람조차도 시민들이 그렇게 많이 참가하여 열렬히 호응할 줄은 미처 몰랐던 것이다.

당시 디머로 나섰던 김재규씨는 “마치 1979년 부마 민주항쟁이 다시 찾아온 듯했다. 우리는 그 동안 많은 시위와 집회를 열어 봤지만 억압공간에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 그날도 경찰이 워낙 강력하게 원천 봉쇄하려 했기 때문에 평소와 같이 일상적인 시위로 그칠 줄 알았다. 그러나 시민들의 반응은 우리의 움추린 예상을 훨씬 앞질렀다. 폭발적인 시위양상을 보고 나중에는 두려움조차 느끼기 시작했다.”고 회상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전두환정권이 이제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는 모습을 부산의 2.7시위는 확연하게 보여주었던 것이라고 하겠다.

한편, 이날 대회장 주변에서는 몇 가지 색다른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오부터 창선 파출소에서 미문화원까지의 도로가 완전 차단되자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게 된 ‘새부산예식장’에서는 “하오 1시에 예정된 장문혁 군과 신경숙 양의 결혼식을 아리랑호텔로 옮깁니다”는 피켓을 들고 다니며 안내를 해 눈길을 끌었다. 또 대각사 맞은편에 위치한 동주여상은 하오 2시부터 시작되는 1천 500여명의 2부 학생의 등교가 불가능해지자 인근 국도극장에 단체 영화관람을 시키는 편법을 썼다. 이날 택시, 버스, 트럭, 트레일러 등이 오후 2시를 기해서 일제히 경적을 울리기로 했는데 뒤따라

오는 버스 한 대가 경적을 울리자 앞 버스도 경적을 울리자 앞 버스가 길을 막아섰다. 앞 버스에서 내린 운전기사가 항의하는 뒤편 버스 운전기사에게 '경적을 울리지 않으면 못간다'고 시비를 걸어 한동안 교통이 체증되었으나 따라오는 버스 운전사가 경적을 울림으로써 다시 교통이 원활하게 되기도 했다.<sup>41)</sup>

## 2) 다시 3·3 대행진으로

2·7추도대회로 자신감을 얻은 추도위는 박종철의 49재를 평화 대행진으로 치르기로 결정하고 성명서를 발표한다. 김대중과 김영삼이 고문으로 들어있는 추도위의 성명서를 살펴보면,

2월 9일부터 3월 3일까지 선포된 '고문추방 민주화 국민 결의기간' 동안 전국 방방곡곡에서 수많은 국민들의 용기와 정성으로 동참하여 주심에 경의와 감사를 올립니다.

—중략—

복지원에서는 시퍼런 젊음이 맞아 죽고 전경조차 기함으로 숨지고 있습니다. 거리거리에서는 젊은이들이 몸수색을 당하고 교도소에서조차 잔혹한 폭력에 비명을 지릅니다. 추도회와 기도회조차 봉쇄당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제 고문추방을 위하여 고문추방이 실현될 수 있는 민주화를 위하여 국민적 결의를 정부와 권력을 향하여 보여야 합니다. 그 방법은 단호하고 분명하며 평화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3월 3일 고 박종철군 49재를 맞아 '고문추방 민주화 국민 평화대행진'을 선언하며 국민 여러분의 동참을 믿고 호소합니다.

△우리는 왜 행진하는가.

1. 고 박종철군 등 고문희생자들에 대한 추모
2. 불법연금, 강제연행, 검문검색 거부
3. 단기구금(구류), 압수수색영장 남용 항의
4. 일체의 고문수사반대, 고발
5. 고문 자백증거에 의한 재판반대
6. 고문살인사건(우종원, 김성수, 신호수등), 고문용공 조작사건(백기완, 이태복, 김근 태, 김문수, 권양 등) 진상 규명과 책임자처벌 요구
7. 고문자백을 근거로 구속복역 중인 양심수 전원석방 요구
8. 고문근절을 위한 민주화 실현
9. 입법, 제도개선(국정조사권 있는 국회기구 등) 요구

1987. 2. 23일

고 박종철군 국민추도회 준비위원회

41) 부산민주항쟁 기념사업회, 《6월항쟁(항쟁일지)》, 유월자료, 1995, p.47.

2·7진압에 실패한 부산시경은 사흘 전부터 내린 갑호 비상령에 따라 도심지마다 검거를 저지선을 펼쳤다. 3월 2일 최성목, 김기수 목사 등 재야인사 50명을 자가보호 조치한 가운데 사리암과 대각사 주변에 경찰병력을 2천여 명을 배치했다. 중구 남포동 등 부산의 중심가에는 아예 전경들이 깔려 행인들은 거리에 시민보다 경찰이 더 많다고 비아냥거렸다. 도심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났고 이 통에 이 거리에 자리잡은 부영극장과 부산극장 등 4개 극장은 황금시간에 관객이 없어 영화 상영을 중단해야만 했다. 3월 3일은 원천봉쇄가 워낙 심한데다 2·7대회로 얼굴이 알려진 재야인사와 민주 인사들이 검거되거나 연금 당하여 분위기가 제대로 고양되지 못할 것 같았다.

3월 3일 오전 부산 사하구 괴정3동 사리암에서는 박종철의 49재를 전통 불교의식에 따라 가졌다. 이번 49재에는 박군의 아버지 박정기씨와 어머니 정치순씨를 비롯하여 가족친지들과 조계종 총무부장 향봉스님, 해인사 주지 명진스님, 통도사 청하스님, 신도 등 4백여 명이 참석했다. 49재는 4시간 동안 진행했다. 소설가 김정환씨(80)가 지팡이에 노구를 이끌고 사리암을 찾아 오자 49재 행사의 주최측은 예정에도 없던 김정환씨의 애도사를 식순에 넣기도 하였다.

오후 6시경 가슴에 검은 리본을 단 신민당 당원과 부민협 산하 재야인사 2백여 명이 동양관광호텔 앞에 나타났다. 이들이 로얄호텔 앞까지 2백미터 가량 침묵 행진을 벌이고 있는데 경찰이 달려들어 '퍼내기'작전에 들어갔다. 퍼내기 작전이란 시위자들을 연행해 몇 시간내 도심으로 돌아올 수 없는 시외곽의 외딴 곳에 내팽개치는 것을 말한다. 시위의 주도자 들이지만 잡아봤자 구속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 '퍼내기'의 대상이었다. 경찰이 정한 퍼내기 대상으로는 야당 국회의원들과 그 누구 보다 적극적인 민가협 어머니들이었다. 이날 경찰은 이들을 닭장차에 태운 뒤 시외곽인 송정 등지로 퍼내었다. 이 당시 부산 출신 야당의원들은 대부분 직선제 개헌의지를 가지고 길거리의 민중들과 함께 투쟁의 대열에 참가하였다.

국회의원들이 실려간 15분쯤 뒤 미화당 부근에 모여 있던 대학생 수백명이 시위대를 형성하여 태극기를 흔들고 반정부구호를 외치며 가두행진을 시도했다. 시위대들은 시민들을 규합하여 남포동으로 진출했으나 강력한 경찰의 저지로 다방골목 등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그러나 다시 6시30분경 학생들은 '고문타도를 위하여'라는 유인물을 뿌리며 충무동 로터리에 재집결하여 각목과 화염병을 들고 경찰과 대치했다. 경찰은 사과탄을 쏘며 시위군중을 해산시켰고, 이 과정에서 35명을 연행하므로써 7시경 도심의 산발적인 시위는 끝났다.<sup>42)</sup>

이날 대각사주변과 남포동, 충무동, 사상 등지에서도 산발적인 시위가 벌어졌는데 경찰이 밝힌 시위자는 신민당원, 대학생, 재야관계자 등 모두 500여명이다. 2.7때의 2만 여명을 '700명'이라 보도한 것에 비하면 꽤 양심적(?)인 발표였다.

42) 부산민주항쟁 기념사업회, 《6월항쟁(항쟁일지)》, 유월자료, 1995, p.57.

3.3 대행진과 관련하여 전국에서 모두 439명이 연행되었고 이중 20여명이 구속되었다. 부산시경은 이날 학생과 시민 120명을 연행하여 이중 적극가담자 3명은 구속하고, 15명은 즉심, 나머지 112명은 훈방조치하였다. 경찰이 구속하기로 한 3명은 양창석(부산대 경제학과 3년), 이승문(부산대 공과대학 4년), 서재호(동아대 경영학과 3년)이다. 양창석과 이승문은 3일 밤 9시20분께 부산 북구 괘법동 서부시외버스터미널 앞길에서 화염병을 갖고 '독재타도'를 외치며 수백 명의 시위대를 인솔하여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서재호는 하오 7시30분께 부산 중구 남포동 부산제과 앞길에서 화염병 10개를 가방에 넣고 시위에 가담했다가 경찰에 체포되었다.

구속된 학생들의 위치를 보면 시위대가 남포동과 사상으로 나뉘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위대가 분산되었기 때문에 사전에 상황실을 만들어 모니터(중간 연락책)를 가동시켰다. 이들 모니터들은 현장의 시위 상황과 경찰의 배치상태 등을 상황실에 제 때에 보고함으로써 전체의 시위 흐름에 큰 도움을 주었고, 이후 벌어진 6월 민주항쟁 때도 상황실과 모니터를 가동시켜 큰 효과를 보게 된다.<sup>43)</sup>

### 3) 민주화의 갈림길 : 4·13 호헌조치

4월 13일 전두환대통령은 TV와 라디오로 전국에 특별 담화를 발표했다. 담화 요지는 “평화적인 정부이양과 서울올림픽 등 국가 대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력을 낭비하는 개헌 논의를 지양하고 민정당의 후임 대통령 후보를 결정할 것이며, 사회 혼란을 조성하는 폭력과 좌경 세력은 엄정히 다스리겠다”는 내용이었다. 관제 언론들은 ‘마침내 와야 할 것이 오고야 말았다’는 식으로 4·13 호헌조치를 안정을 위한 중대한 용단 등으로 미화하거나 아첨하는 기사로 지면과 화면을 가득 메웠다.

그러나 각종 정부기구를 통한 호헌지지의 유도 공작에도 불구하고 4·13조치는 즉각 거센 반대여론에 부딪치고 말았다. 각계각층에서 호헌 조치를 반대하는 성명서와 서명, 농성이 줄을 이었던 것이다. 대한변협이 재빨리 호헌 반대 성명서를 발표한데 뒤이어 전국의 신부, 수녀들이 4·13철회를 위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목회자들은 반대기도회에 들어가고 사회단체와 대학교수들이 반대성명서를 내거나 시국선언서에 서명하였다. 매일같이 성명, 농성, 단식, 삭발, 기도회가 계속되었고, 뻔뻔스런 관제 언론에 분통이 터져 TV를 박살내거나, 대문에 ‘신문사질’을 써 붙이는 사람들도 있었다. 정부시책에 대해서 종교인들과 지식인들이 이처럼 열화같이 집단적으로 반발한 사례는 건국 이래 없었던 초유의 사건이었다.

43) 부산민주항쟁 기념사업회, 《6월항쟁(항쟁일지)》, 유월자료, 1995. p.58.

## 2. 6월 민주항쟁의 제1단계 : 6월 10일에서 6월 17일까지

▷ 6월 10일 「박종철군 고문살인 은폐 규탄 및 호헌 철폐 부산 시민대회」

6월 10일 오후 6시 ‘박종철군 고문살인 은폐 규탄 및 호헌 철폐 부산 시민대회’가 예정된 시내 대청동의 대각사는 고요한 적막 속에 경찰의 철통같은 경비가 대각사 반경 1km를 에워싸고 있었다. 광복동, 남포동, 충무동 등 주요 지역의 골목마다 완전 무장한 병력들이 통제하고 있었다. 대각사 집회가 원천 봉쇄되었음을 확인한 부산대 학생들이 부산의대(대학병원)에 집결하여 시위를 벌였다. 여기서 경찰이 병원 안쪽으로 까지 최루탄, 지랄탄을 난사함으로써 병원 출입자들 뿐만 아니라 환자들에게 까지도 피해를 입혔다. 그러자 “독재타도, 호헌철폐!”를 외치는 시위대의 숫자는 오히려 불어나기 시작했다.

한편 광복동 로얄호텔 앞에 모여 있던 시민들은 자갈치시장 쪽으로 밀려난 뒤, 시위대를 형성해서 또 다른 대열을 이루었다. 경찰은 이날 시위대와 시민들의 연대를 막기 위해 처음부터 최루가스를 무차별 살포했을 뿐만 아니라, 최루탄 발사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안전 수칙마저 무시했다. 이날 대부분의 시위 부상자가 구경하던 시민들 중에서, 그것도 파편이나 직격탄으로 인한 부상이었던 점에서도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최초의 부상자는 시위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었다. 자갈치 시장에 어머니 대신 수금하러 나왔던 시민 김현숙씨(27, 여, 강서구 대저동)가 얼굴, 손, 팔, 가슴에 최루탄 파편 70여개가 박히는 부상을 당했으며, 로얄호텔 앞에서는 5세 가량 되는 여아가 사과탄 파편에 안면을 맞아 유혈이 낭자한 가운데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경찰의 이런 초기 과잉진압은 구경하던 시민들의 분노를 더욱 가중시켰고, 투쟁의 불길을 당기는 불씨를 제공했다. 경찰의 과잉진압은, <표 6-3-1>에 제시되고 있듯이, 연행자의 수에서도 잘 나타난다. 곳곳으로 흩어진 시위대는 오후 8시경 다시 부영극장 앞에 모여 격렬한 투석전을 벌였다.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였다. 동광초등학교 인근에서 처음으로 경찰 1개 중대가 도망을 가다가 시민들에게 포위를 당하여 무장해제될 정도였다. 그날의 투쟁은 11시를 넘어서까지 지칠 줄 모르고 진행되었다. 시위대들은 특정 장소에서 거대한 군중을 형성하는 대신에 시내 각처로 흩어져 자연 발생적으로 동시다발적인 시위를 벌였다. 원천 봉쇄를 계획하였다가 뜻하지 않게 산발적으로 전개된 이런 시위형태는 경찰의 작전망을 흐트러 놓았다. 반면 시위대는 도심지 투쟁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1979년 부마 민주항쟁 때 이미 그 위력이 확인된 바 있던 ‘동시다발의 기동성 시위’ 방법을 전개해 나갔다. 학생 전위대들이 태극기를 들고 이곳 저곳에서 “와서 모여 함께 하나가 되자...”라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 삼시간에 몇 개의 시위대가 형성되는 식으로 ‘모였다, 흩어졌다’를 반복하였던 것이다. 이날 대대

적인 투쟁을 통해 터득한 시위방법은 이후 이어지는 가두에서 계속 응용 발전되었다. 이같은 방식으로 시위는 자정을 넘겼고, 시민과 학생들 중의 일부는 고 박종철군 가족들이 농성 중인 보수동 중부교회에 모여 철야농성에 돌입하였다. “우리 종철이를 살려내라”, “애국시민 단결하여 사기정권 몰아내자!” 등 그들의 구호와 투쟁 결의는 밤이 깊어도 그칠 줄을 몰랐다.

<표 6-3-1> 6·10 대회 구속자 명단

6월 10일 시위에서 총 1백 70명이 연행되어, 12일 8명은 구속되고 43명은 즉심에 회부되었다. 그리고 나머지는 훈방되었다. 구속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구 속 최영규(동아대 수학과 4년)
- 이상철(부산대 영어교육과 1년)
- 김정수(20세, 무직)
- 이광우(부산대 심리학과 1년 휴학)
- 김대곤(24세, 무직)
- 김형태(부산외대 독어학과 1년)
- 권순철(수산대 어업학과 3년)
- 서호경(19세, 무직)

▷ 6월 11일 부산지역 각 대학 「6·10 투쟁 보고대회」 개최

다음날 11일에도 부산과 대구, 마산 등 영남지역에서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투쟁의 불씨가 되살아 났다. 학생들은 즉각 ‘6. 10 투쟁 보고대회’를 개최하였다. 살인적인 진압을 규탄하는가 하면, 계속적인 투쟁을 결의하며 대열을 재정비했다. 보고대회를 마친 학생들은 각 학교별로 거리로 몰려 나갔다. 그들은 곧장 시민들과 합세했다. 가물어 갈라진 땅을 적시는 물이 고랑마다 흘러 다니듯 시위대는 거리거리를 누볐다. 부산 가톨릭센터 앞에는 5백여명 정도가 시위대를 형성했다. 교통이 차단되고 경찰이 몰려오자 곧 투석전이 시작됐다. 이 시각 시내 곳곳은 학생 시위대의 물결로 뒤덮혔다. 시민들은 제2의 부마 민주항쟁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대낮에도 시민들의 합세가 조급씩 눈에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 6월 12일 「대통령배 국제 축구대회, 구덕 운동장의 함성」

부산지역은 12일부터 시위가 가열되기 시작했다. 오후 2시 부산지역 총학생회

협의회(이하 부총협) 소속 대학생 1천5백여 명이 수산대학교에서 연합집회를 개최하고 교문투쟁을 벌였다. 연합집회에 앞서 이미 기말고사를 거부했던 부산대생들과 이날 시험 거부에 돌입한 부산산업대(현 경성대)생 등은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이날 부산대 교문투쟁에서 경찰은 사상 최초로 64연발 다탄두 최루탄 발사기(이전의 일명 ‘지랄탄’은 32연발)를 실전 배치했다. 각종 집회를 마친 학생들은 시내로 진출해서 시민들과 함께 연인원 1만여 명의 끈질긴 가두시위를 진행했다. 밤 8시경 서대신동 구덕운동장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축구경기가 한창 벌어지고 있었다. 같은 시각 동아대 대신동 캠퍼스에 모였던 부산지역 대학생들이 가두 출정식을 벌이고, 시내로 가는 길에 구덕운동장 앞에서 동대신동 3과출소를 습격하고 집회를 가졌다. 관람을 마치고 나오는 시민들과 합세하기 위해서였다. 4백여 명의 학생들은 “독재타도 호헌철폐”를 외치며 연좌했다. 하지만 시간이 다소 빨랐다. 그들이 맞닥뜨린 사람들은 관중들이 아니라 경찰이었다. 경찰들은 다짜고짜 최루탄을 쏘아대었다. 경찰이 쏜 최루가스는 시위대에게만 아니라 경기장에도 날아들었다. 축구경기가 30분 동안 중단되었다가 다시 진행되기도 했다.

▷ 6월 13일 「전방입소훈련을 마친 수산대, 산업대 학생 부산역 시위」

부산대는 연일 7, 8천명이 시위에 참가하여 교문투쟁에서 경찰 저지를 뚫고 수천 명씩 거리로 밀려 나갔다. 13일에는 사직동 고속터미널로 진출하여 집회와 시위를 벌였다. 이날 저녁 7시경 부산역 플랫폼에서는 1천여명의 학생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그들은 전방 입소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던 수산대와 산업대 학생들이었다. 광장으로 나온 학생들은 집으로 가는 대신 연좌 농성을 벌였다. “독재타도 호헌철폐”를 외치는 학생들을 발견하고 지나던 시민들과 대합실 시민들이 합세하여 일거에 1만여 명으로 늘어났다. 구릿빛 얼굴을 하고 도로를 점거한 시위대는 “호헌 책동 저지하여 민주헌법 쟁취하자”고 외쳤다. 주위의 시민들은 인근 상점에서 ‘쭈쭈바’를 수십개 씩 사서 시위대 위로 던졌다. 1시간여 동안 연좌시위를 하던 거대한 시위대는 경찰의 진압으로 흩어져 남포동과 서면에서 시위를 계속 벌여 나갔다.

▷ 6월 14일 「축구장에서 야구장으로 함성은 이어지고」

14일에도 역시 부산시내 대학생 8천여 명이 교내시위 후 가두시위를 벌였다. 마침 사직야구장에서는 해태와 롯데의 경기가 열렸다. 경기를 마칠 무렵, 응원 구호가 “화이팅” 대신에 “독재타도”로 돌변했다. 시민들은 손에 손을 잡고 ‘우리의 소원’, ‘애국가’를 연창했다. 경기가 끝나도 관중들은 빠져 나오지 않았다. 계속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자 경찰들이 강제해산에 들어갔다. 빠져 나오면서도 시민들은 여전히 구호를 외치고 함께 마음을 다지는 여유까지 보였다.

## ▷ 6월 15일 「일요일에도 투쟁의 불길은 타오르고」

15일은 일요일이었다.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부산 시내 각 대학에서는 집회가 열렸다. 집회는 마치 일상의 과업처럼 자연스럽게 이루어 졌다. 그 형식도 마찬가지였다. 민주영령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하여, 전날 가투의 결과 보고, 부상자 현황, 전국의 투쟁 상황, 반성과 방향성, 토론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마지막에는 학과별로 모여 그 날의 가투장소를 연락 받고 해산했다. 이 날도 부산대 6천여명, 산업대 1천여명, 수산대 1천여명 등이 교내시위 후 가투로 진출했다. 일요일 시내를 찾았던 많은 시민들은 무리지어 나온 학생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동조하거나 심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저녁 7시경 서면에 집결한 시위대 1천여 명은 동보서적 근처에서 시위를 시작하였는데 역시 일반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경찰에 연행되어 가는 학생들을 구출해주는 아주머니나 육교 위에서 시위대를 향해 돈을 뿌리는 시민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시위대는 밤늦도록 '홀어졌다 모였다'를 반복하며 곳곳에서 게릴라식의 시위를 벌였다. 부산역 광장은 이제 부산시민들의 정치 토론장이 되고 있었다. 시위대는 서면과 범내골, 광복동, 국제시장 등지에서 자정까지 시위를 벌였다.

▷ 6월 16일 「부산의 명동성당, 가톨릭센터 농성 시작」 16일부터 경찰버스 방화, 파출소 습격 등 분위기가 상당히 험악하게 변하였다. 이 날은 부산대 5천여 명 등 9개대학 1만 여명이 비상학생총회를 개최하고 시내에서 연합시위를 벌였다.

대청동 사거리에서 시위대 5천여 명은 충무동 시위대와 합세하면서 남포동 거리를 완전히 뒤덮어 버렸다. 시위대는 금방 1만 여명을 넘어섰다. 대중집회를 마친 남포동 시위대는 인근 시청 옆 MBC 방송국으로 향했다. 방송국으로 가기 시작하자 경찰은 시청 앞을 최후의 저지선으로 삼아 차단했다. 경찰 저지선까지 이동한 시위대는 연좌시위를 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평화적 연좌시위도 아랑곳 않고 몇 차례 경고 방송과 함께 곧바로 최루탄을 난사하면서 진격했다.

홀어진 시위대는 국제시장과 대청동, 보수동 등지로 나뉘어 시위에 들어갔다. 대청동 사거리에서 폭력진압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이던 소규모 시위대는 경찰 진압에 밀려 영선고개 쪽으로 피하다가 가톨릭센터 앞에서 멈췄다. 이들은 인근 공사장에서 가져온 철근과 벽돌, 시멘트 포대 따위로 바리케이트를 쌓았다.

이윽고 몰려온 경찰들의 최루탄이 난무하는 가운데 본격적인 투석전이 벌어졌다. 대치 시간이 차츰 길어졌다. 학생들은 대학별로, 시민들은 자체적으로 곳곳에 불을 지피고 투쟁 의지를 다졌다. 최루탄을 난사하는 경찰은 집요하게 해산을 시도했고, 시위대는 물러서지 않았다. 시민들 중 일부는 가톨릭센터 쪽과 계속 의견을 주고 받았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가톨릭센터 쪽에서는 비상시에는 센터 안으로 들어와도 좋다고 승낙하였다.

고립된 시위대를 향한 경찰의 전방위 해산작전은 끈질기게 계속됐다. 시간은 흐르고 사태가 장기화되자 시위대는 최루가스를 뒤집어 쓴 채 센터 안으로 들어갔다. 센터 문을 잠근 시위대는 대열을 정비하고, 농성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경찰이 다시 몰려오기 전에 흩어질 것인지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논의는 가톨릭센터를 사수하여, 투쟁의 중심지로 만들자는 데로 모아졌다.

그리하여 해산하는 23일까지 가톨릭센터의 농성은 부산지역의 시위를 이끄는 구심적 역할을 해내면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 ▷ 6월 17일 「조도 상륙작전과 해양대생들의 투쟁」

17일의 부산지역 대학들의 사정은 예전과는 달랐다. 가톨릭센터 농성 소식이 알려지자 상당히 고무되기 시작하였다. 12시경 동아대 하단캠퍼스에서 출정식을 마친 동아대 학생들은 하단 삼거리를 점거한 후, 괴정 삼거리까지 행진을 벌였다. '군부독재 타도, 양심수 석방, 호헌철폐'를 계속 외치며 나아가다 괴정 삼거리에서 경찰과 충돌, 1시간 30분 동안 격렬한 투석전을 전개했다.

경찰과 학생 모두 상당한 부상자를 내었으며, 시위대는 일단 흩어져서, 대신동 구덕운동장 육교에서 재집결했다. 오후 2시경 대신동에서 1천여 명으로 대오를 갖춘 학생들은 그대로 충무동과 남포동으로 진출했다. 이들은 돌격대를 구성하여 충무1 파출소를 습격하여 연행된 동료학생을 구출하기도 했다.

비슷한 시각 영도가 술렁거렸다. 해양대학교는 시위를 하면서 학교에서 바로 시내로 진출할 수 없었다. 해양대(조도)와 영도의 유일한 통로인 방파제를 경찰이 막아 이를 뚫을 다른 방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7일은 정면돌파를 시도했다. 북항 쪽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리며 해양경찰 쾌속선이 전경들을 방파제에 풀어 놓았다. 학생들은 섬 쪽으로 몰렸다. 시위대의 허리가 잘리면서 정면돌파는 실패했다. 시위진압을 위해 배까지 동원된 이 사건을 일러 '조도 상륙작전'이라 불렀다.

부산지역은 17일부터 '가톨릭센터 농성' 지지 투쟁을 중심으로 결집되기 시작했다. 오후 6시 30분경 국제시장에는 1천 5백여명의 시민들이 모여 가톨릭센터로 향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찰의 저지로 흩어져, 8시경 다시 시청 쪽으로 모였다. 대략 5천명의 시민들이 경찰과 치열한 투석전을 벌였다.

9시 30분, 부산역에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 들기 시작했다. 1만 여명이 질서정연하게 대중 집회를 개최하였다. 시민들은 부산역 근처의 KBS 방송국을 점거하자고 외쳤다. 시위대는 제도 언론의 왜곡과 편파 보도에 대응하기 위해 자신들의 언론인 「민주부산」(국민운동 부산본부), 「절규」(부산대 총학생회)와 그 외의 유인물을 들고 다니면서 주변의 상가와 인도의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편집이 서툰고 철자법이나 맞춤법이 틀린 것도 많았다. 하지만 시민들은 세련되게 인쇄된 신문보다 영성하게

만든 이런 진술한 유인물을 오히려 더 신뢰하였다.

시민들은 연일 KBS 방송국 앞에서 경찰들과 격렬한 투석전을 벌였다. 밤 10시가 넘자 시내 곳곳에서 시위를 벌이는 시민은 3만에서 4만 가까이 이르렀다. 주변 상가의 아주머니들은 물수건을 날랐고, 치약을 준비해서 시위대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 날 자정을 넘기면서 전국 각지에서 부산으로 경찰 지원병력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다.

### 3. 6월 민주항쟁의 제2단계 : 6월 18일에서 6월 25일까지

#### ▷ 6월 18일 「최루탄 추방의 날」

6월 18일 부산은 전날부터 거의 시민봉기에 가까운 양상을 보였다. 이에 따라 정부도 즉각 대응하기 시작했다. 10개 대학이 서둘러 조기 방학에 들어갔다. 부산지역 대학생 2만 여명이 부산대에 모여 '부총협' 연합출정식과 대동제를 마치고 시내로 진출하면서 국본이 주체한 '최루탄 추방의 날' 행사 및 시위는 시작됐다. 양정로터리와 부산진시장 주변에서부터 시위대가 형성되어 서면로터리로 합쳐지면서 대규모 집회로 변모했다. 6만 여명이 넘는 군중들 속에서 시민과 학생 그리고 노동자들이 하나가 되었다.

평소 사상공단에서는 대학생들이 시위를 해도 언제나 조용하였다. 그 날도 5백여 명의 부산대생들이 시위를 벌였다. 오후 6시, 평소와는 좀 다른 분위기가 감지 되었다. 잔업을 거부한 노동자들이 하나 둘씩 나와서 시위대에 가세하였다. 참가하는 노동자들의 숫자는 차츰 불어났다. 공단의 북쪽에서부터 서부 시외버스터미널까지 노동자와 학생이 거의 비슷한 수로 모여 연합시위를 벌였다. 노동자와 학생들은 주례와 가야로를 거쳐 서면으로 향하는 동안 경남전문대생들과 다시 합세했다. 이 날 시위는 198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노학연대의 기치를 들고 사상공단 가두 투쟁을 벌여왔던 학생들의 투쟁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기도 하였다. 비로소 노동자와 학생 간에 하나가 되는 연대감을 확인하는 날이었다.<sup>44)</sup>

서면에는 이미 30여만명의 시위대가 운집해 있었다. 로터리를 중심으로 부산상교 앞 대로와 부전시장 방면, 그리고 범내골 일대의 큰길에는 인파로 가득하였다. 왕복 8차선의 5-6km가 시민들로 가득 찼던 것이다. 한동안 최루탄을 쏘아 대던 경찰도 마침내 진압을 포기하고 말았다. 군중의 긴 대열은 꿈틀거리며 거대한 용처럼 물결쳤다. 정치집회를 주최하는 사람들이나 대열을 형성했던 사람들이나 모두가 상기된 표정이었다. 부산시민들은 부마 민주항쟁의 기억을 떠올리며 '우리가 움직이면 정권이 바뀐다'는 신념을 마음속으로 재확인하고 있었던 것이다.

같은 시각 남포동에서도 시위는 일어나고 있었다. 오후 7시, 국제시장, 남포동, 보수동 로터리 등지에서 수천 명 단위로 시위대가 형성되어 시청과 부영극장 쪽으로

이동하면서 시위를 벌였다. 이 소식을 접한 서면 시위대는 남포동 쪽 시위대와 합세하기로 하고 부산역 쪽으로 향했다.

한편 서면 시위대는 범일 고가도로로 진출하여 그 곳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의 최루탄 난사에 투석전으로 맞섰다. 일부가 경찰 저지선을 뚫고 부딪길을 거쳐 부산역으로 진출하고, 일부는 서면과 부산진시장 쪽으로 대열을 정비했다.

밤 10시경이었다. 서면 시위대는 한 명씩 촛불을 들기 시작했다. 촛불 시위대는 서서히 전진했다.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모여들었다. '독재타도', '호헌철폐'의 함성은 거대한 촛불 시위대를 만들어 냈다. 그들은 다시 범일고가 도로를 통해 이어지는 좌천동 고가도로(일명 '오바버릿지')를 통과하려고 했으나 경찰의 저지에 부딪쳐야 했다. 인파는 도로와 고가도로에 뺨뺨이 들어차 있었다. 시위대가 전진을 시도하자 경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최루탄을 난사했다. 도로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최루가스가 만들어 낸 연무로 뒤덮힌 고가도로에서 한 사람이 떨어졌다. 이태춘씨였다. 그는 곧장 인근의 봉생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4일 저녁 결국 숨지고 말았다. 민주화의 투쟁에서 또 하나 산화한 아름다운 꽃!

새벽 0시를 넘기면서 시위대는 기나긴 투쟁 끝에 경찰 저지선을 뚫는 데 성공하였다. 시위대는 기세를 몰아 KBS 앞으로 몰려갔다. 다시 방송국 앞에서 투석전이 벌어졌다. 이태춘씨의 비보가 전해진 뒤라 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2만 여명이 넘는 시위군중이 밤을 새우며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화염병이 방송국으로 날아 들어 각종 집기류를 불태웠다. 이 날 KBS 앞에서 직격탄을 맞은 문철수씨(당시 33세)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19일 새벽 끝내 실명하고 말았다.

방송국 점거에 실패한 시위대는 YWCA 앞에서부터 횃불시위를 벌였다. 일본 영사관을 기습하여 유리창 42장을 깨고, 부산역으로 진출했다. 숫자가 조금씩 줄어든 시위대에 2백여 대의 택시와 대형트럭이 가세했다. 이들은 시청으로 향했다. 경찰과 대치하며 한동안 공방전을 벌이던 시민과 학생들은 다시 시내 곳곳으로 흩어졌다가 가톨릭센터로 모여 들었다. 이들은 농성자들과 함께 연합 시위를 벌였다. 벌써 아침 해는 점점 밝아오고 있었다.

이즈음 부산에서는 차량 경적 시위와 노킹(엔진 조작으로 내는 폭음) 시위가 유행하였다. '민주택시기사협의회'라는 이름의 기사들은 밤늦은 시간에 차량 행렬로 시위에 동참했다. 이들은 기사식당 등을 통해 집결 장소를 전달하고 전달 받았다. 기사들은 직접 시위에 가담하거나, 유인물이나 화염병을 운송하든지, 아니면 바리케이드의 역할을 기동성있게 해 내었다. 뿐만 아니라 시위대를 따라다니면서 화염병과 기름을 대주는 병기고가 되기도 했다. 차량 시위가 많아지고 대규모화하자, 20일 부산 택시운송사업조합은 앞으로 학생시위가 진정될 때까지 당분간 밤 12시부터 다음 날

44) 부산민주항쟁 기념사업회, 《6월항쟁(항쟁일지)》, 유월자료, 1995, pp.122-123.

새벽 4시까지 택시의 운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택시 입고가 시 당국과 택시조합의 마음대로 되지는 않았다.

▷ 6월 19, 20일 「비속에서도 투쟁은 이어지고」

19일부터는 비가 내렸다. 그러나 학생들은 거친 빗줄기를 뚫고 일거났다. 부산 시내 10개 대학과 3개 전문대생들은 이 날 학교별로 출정식을 갖고 다시 시내로 몰려 나왔다. 가야로에서, 범내골에서, 그리고 범일동 중앙시장과 서면 태화쇼핑 등을 오가면서 전경들을 무장해제시키고 해방구를 만들었다. 시위대는 기동대를 무장해제시키는가 하면, 진압장비를 탈취하기도 했으며, 초량 1, 2, 3 파출소, 남포파출소, 부산진파출소, 보수1파출소 등에 방화하고 집기를 파손하였다.

20일에도 비는 계속 내렸다. 우울한 날씨에다 18일부터 나들기 시작한 공수부대 투입설의 유언비어로 인해 시위의 열기는 다소 소강 상태에 빠진 듯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에서는 쏟아지는 빗줄기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우산을 들고 거리로 나왔다. 이 날 시위에는 종교인들과 고등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눈에 띠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산지역 전도사협의회원 50여명과 대학생 5백여 명이 거대한 흰 십자가를 앞세우고 범내골로터리 쪽으로 행진하였다.

오후 1시 15분경 부터 시작된 이 날 시위는 동의공고 학생 2백여 명을 비롯 5백여 명이 대학생 시위대를 따라 시가행진을 벌였다. 시 교위와 각 학교에서는 가정 통신문을 보내는 등 시위 참여를 막으려 하였으나, 고교생 시위 참여자들은 갈수록 늘어만 갔다.

▷ 6월 21일 「8백 6명의 연행」

21일에도 시위가 대규모로 벌어졌다. 이 날 시위에서는 8백 6명이 연행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이 날 이후 가톨릭센터 농성해제까지는 시위의 강도나 범위가 하향 곡선을 그리는 분위기였다.

이 시기 부산에서는 시위 부상자가 속출하여 부산의대와 치대, 고신의대, 인제의대 등에서 4학년생을 중심으로 진료반을 구성했다. 이들은 남포동 국도극장 앞에 고정 진료소를 설치하였으며 이동 진료반도 구성해서 기동성을 살리기도 했다. 제약회사에서는 약품을 트럭채로 실어 날라다 주기도 했다. 당시 이 곳을 일명 '평화의 거리'라고 불렀다.

▷ 6월 22일 「가톨릭 농성 해제」

부산대생 200여명이 장전동과 온천동에서 시위를 하고, 동아대생 400여명도 하단과 전포동 등지에서 시위를 전개하였다. 그리고 부산상고 등 3개 고교의 운동장에 시위

동참을 촉구하는 유인물이 뿌려져 긴장감이 고조되기도 했다. 이날 그 동안 가톨릭센터에서 농성을 계속하던 시민과 학생들이 경찰로 부터 안전귀가를 보장받고 귀가하던 중 귀가버스 1대에 남부경찰서 경찰의 보복적인 최루탄 투척과 폭행으로 17명(신부 2명, 운전사 등)이 부상하여 메리놀병원에 입원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 6월 23일 「가두시위가 없었던 하루」

6·10 이후 이날 처음으로 가두시위가 없었다. 단지 부산대, 동아대, 산업대생들의 교내 집회가 있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경찰의 폭력을 규탄하는 신부들에 의해 다시 가톨릭센터에서 농성이 시작되었다. 천주교 부산교구 소속 80여명의 사제단 전원이 23일 오후부터 가톨릭센터 7층에서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던 것이다.

▷ 6월 24일 「이태춘씨 사망」

각 대학에서는 '가톨릭센터 농성귀가자 폭행 보고 대회'가 열렸다. 이들은 다시 거리로 나서서 민정당사와 경찰서를 공격했다.

6월 24일 밤 8시 40분께 이태춘씨가 사망하였다. 병원에서 신음한 지 6일만이었다. 그러나 시위 분위기는 이미 소강국면으로 빠져 들고 있었다. 지도부는 26일로 예정된 '평화대행진'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런 분위기를 틈타 경찰은 시위주도 학생과 재야인사 등 70여명에 대해 긴급 검거령을 내렸다.

#### 4. 6월 민주항쟁 제3단계 : 6월 26일에서 6월 29일까지

▷ 6월 26일 「평화 대행진」

드디어 26일, 평화대행진 투쟁의 서막을 연 사람들은 종교인이었다. 농성을 계속 중인 천주교 신부들은 신도 2천 5백여 명과 중앙성당에서 '민주화와 인권회복을 위한 특별미사'를 열었다. 그리고 대청동에서는 신부, 수녀 등 4백여 명을 포함하여 1만 5천여 명의 시민들이 평화행진을 하였다. 신부와 수녀들이 앞장서서 "애국시민 단결하여 폭력정권 끝장내자"라는 플래카드를 들었다. 폭력정권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지만, 이 날 시위는 그야말로 평화롭게 진행되었다.

차츰 시위대의 숫자가 불어나게 되자 위기감을 느낀 경찰들은 최루탄과 다탄두를 사용하여 해산작전에 들어갔다. 같은 시각, 서면 쪽에서도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다.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밀리는 듯하다가, 퇴근시간부터 회사원 등 시민들이 가세하여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이들은 가야 2파출소를 전소시켜 버렸다.<sup>45)</sup>

이 날은 운수 노동자들이 가세하여 시내버스 7대가 시위에 동원되었다. 시위대는 시내버스를 앞세우고 문현로터리까지 시위 행진을 벌였다. 항쟁 분위기는 다시

45) 부산민주항쟁 기념사업회, 《6월항쟁(항쟁일지)》, 유월자료, 1995, p.151.

본격적인 상승국면에 돌입하였으며, 시민들은 새로운 국면에서 승리의 확신을 차츰 다져 가고 있었다.

▷ 6월 27일 「故 이태춘씨 장례식」

27일 오전 10시부터 이태춘씨 장례식이 그가 다니던 범일성당에서 시민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국민운동 본부장으로 열린 장례식을 마친 시민들은 도로를 점거하고, 문현동로터리까지 4km를 2시간 30분 동안 행진하며 침묵시위를 벌였다.

▷ 6월 28일 「시민 대토론회」

28일 오후 3시, 부산 대청동 중앙성당에서는 또 다른 미사가 거행되고 있었다. 신부, 수녀, 신도, 그리고 학생 등 3천여 명이 참석한 이날 미사는 '폭력종식과 인권회복을 위한 특별미사'였다. 이들은 미사가 끝난 5시부터 가두로 진출하기 시작했다. "군부 독재 끝장내자", "폭력 종식", "직선 개헌", "최루탄 추방"과 같은 피켓을 들고 가톨릭센터까지 행진을 했다. 시가행진에서 다시 시민들이 가세하여, 5천명으로 길게 늘어선 시위대에게 연도의 시민들이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가톨릭 센터에 모인 시민과 학생들은 무조건 구호만을 외치지는 않았다. 이제 시위의 양상은 보다 성숙한 단계에 접어 들어, 시민들은 즉석에서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역량을 보여주고 있었다. 토론회에서 많은 시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과감하게 말하였고, 또 서로가 서로를 뜨거운 박수로써 격려하였다. 이 날의 시위는 평화적으로 끝났다.

▷ 29일 「6·29 선언」

전국적으로 엄청난 대규모의 투쟁이 계속되자 지배자들의 두려움은 더해갔다. 이 두려움은 드디어 6·29 선언으로 나타났다. 1987년 6월에 뜨겁게 타올랐던 전 국민의 투쟁앞에 마침내 항복을 선언한 것이다. 그 선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이고 개정된 헌법에 의거, 연내에 선거를 실시한다.
- ② 대통령 선거법을 개정한다.
- ③ 김대중씨를 사면하여 복권시키고 극소수를 제외한 시국 관련 사범을 대부분 석방한다.
- ④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한다.
- ⑤ 언론자유를 창달한다.
- ⑥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대학을 자율화한다.
- ⑦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한다.
- ⑧ 과감한 사회정화를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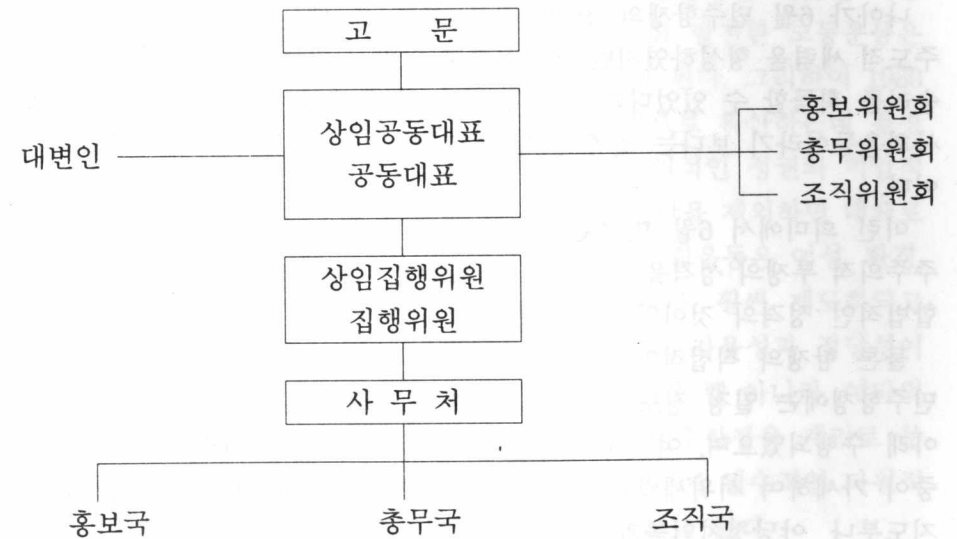
5. 국민운동 부산본부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지도부로서 국민운동 부산본부의 결성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 빨랐다. 서울에서 국민운동 본부의 건설에 관한 논의가 한창이던 5월 20일 2시 당감성당에서 "부산민주시민협의회(부민협)"와 종교계, 통일민주당, 학생, 노동자 100여명이 모여 "호헌반대 민주헌법쟁취 범국민운동 부산본부"를 결성한다. 이후 전국적인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 부산본부"로 개칭하였다. 이와 같이 부산의 민주화 운동에서의 국민운동 부산본부의 조기결성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 부산의 6월 민주항쟁을 보다 힘차고, 보다 조직적으로 전개시킬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일 것이다.

국민운동 부산본부의 조직구성을 보면, <그림 6-3-1>과 같이, '고문', '공동대표', '집행위원', '사무처'를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다. <표 6-3-2>와 같이, 공동 대표에는 최성묵, 박승원 등이 있었고 상임집행위원장은 노무현, 사무국장에 고호석 등이 활동하였다.

국민운동 부산본부에는 '부산민주시민협의회', '부산지구기독교청년협의회', '부산NCC 인권위원회', '사회선교부산지구협의회', '부산민주화실천 가족운동협의회', '천주교 정의구현 부산교구 사제단', '경남지역 목회자 정의평화실천협의회', '부산민주노동자투쟁위원회', '부산 천주교사회운동협의회', '통일민주당 1, 2, 3, 6지구당', '부산지역 총학생회 협의회' 등의 단체들이 참가하였다.

국민운동 부산본부의 기관지로서, 제도권의 언론 보다도 더욱 신뢰를 받던, 거리의 신문 "민주부산"은 김진모(편집장), 김정호, 양은진 등에 의해 제작 되었다.



<그림 6-3-1> 국민운동 부산본부 조직표

국민운동 부산본부 임원

<표 6-3-2>

공 동 대 표	상임집행위원
최성목 목사(부산민주시민협의회 회장)	노무현(상임집행위원장) 김기수, 김상찬 김영수, 김용환 김인호, 노무현 문재인, 배갑상 소 압, 이광수 이재만, 하 일 고호석, 김재구 홍순오
박승원 신부(천주교 정의구현 부산교구 사제단대표)	
김광남(부산민주화 실천 가족운동협의회 회장)	
권광식(부산지구 기독교청년협의회 회장)	
박찬중(통일민주당 부산 제1지구당 위원장)	
서석재(통일민주당 부산 제2지구당 위원장)	
김정수(통일민주당 부산 제3지구당 위원장)	
문정수(통일민주당 부산 제6지구당 위원장)	
김상찬(민주헌정연구회 부산지부 대표)	
김중순(민주산악회 부산지부 대표)	

6. 6월 민주항쟁의 의의와 평가

민주화운동으로서 6월 민주항쟁이 직접적인 투쟁의 쟁점으로 삼은 것은 고문치사 사건과 군부독재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요구로 내세운 것은 대통령 직선제를 위한 개헌이었으며, 이를 통하여 군부통치를 종식시켜 한국 사회의 민주화를 이룩한다는 것이 목표였다. 이러한 목표에 비추어 볼 때, 직선제 개헌요구는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수단과 방법에 해당하는 것이다.

나아가 6월 민주항쟁의 전개과정을 살펴 볼 때, 비록 학생과 노동자들이 시위의 주도적 세력을 형성하였지만 궁극적으로 일반 시민들의 지원과 동참을 통하여 최종적 승리를 획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어느 특정 계급이나 사회세력에 의해 주도되었던 사회운동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시민혁명적 성격을 지니는 것이라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6월 민주항쟁은 운동의 주체나 목표의 측면에서 본다면 시민 민주주의적 투쟁의 성격을 지녔다고 하겠으며, 그 방법의 측면에서 볼 때는 평화적 혹은 합법적인 성격의 것이었다고 하겠다.<sup>46)</sup>

물론 항쟁의 직접적인 주체세력과 지도부의 구성이라는 측면에서 파악할 때, 6월 민주항쟁에는 일정 정도 민주지향성 혹은 계급주의적 급진성을 가진 지도부의 지휘 아래 수행되었으며, 여기에 중간층을 필두로 한 일반 시민들과 학생 그리고 기층민중이 가세하여 시위세력이 형성되었다는 특징을 갖는다. 특히, 당시 국민운동본부의 지도부나 야당정치인들과 달리, 조직실무를 맡은 중간간부들과 청년회원 그리고

46) 부산민주항쟁 기념사업회, 「한국 민주주의와 부산의 6월항쟁」, 도서출판 6월자료, 1997.

학생들은 민주적 정체성을 강하게 띠고 있었다. 실제로 이 시기의 학생운동, 특히 그 지도부는 이미 상당히 계급주의적 편향성을 가지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민주항쟁은 운동의 목표와 방법, 주체 세력 및 참여세력의 분포를 볼 때, 전체적으로 시민항쟁의 성격을 지녔으며, 여기에 민주적 투쟁이 부차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하겠다. 6월 민주항쟁 이후 노동자 대투쟁의 과정과 학생운동의 과격화-급진화를 겪으면서 시민적 성격과 민주적 성격은 서로 침체하게 대립하거나 갈등하게 되었으며, 마침내 김영삼 문민정권의 성립과 함께 시민적 세력이 한국 민주화운동에 있어서 확실한 주도세력으로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6월 민주항쟁이 지니는 역사적 의의를 정리해 보기로 하자.

첫째, 6월 민주항쟁은 독재권력에 대항한 시민과 민중의 단합된 투쟁력으로써 군사 독재정권을 굴복시켜 공식적인 항복선언을 획득하였다는 점이다. 6월 민주항쟁은 4.19 혁명 이후 처음으로 무자비한 독재권력과의 험난한 대결에서 민중과 시민이 끈질기게 그리고 희생적으로 투쟁하여 마침내 독재정권을 붕괴시키고 민주주의를 확대할 수 있는 획기적 전기를 마련한 것이다.

둘째, 6월 민주항쟁은 억압적이고 착취적인 국가에 대항하는 저항적인 시민사회가 총력을 집결하여 투쟁한 것이었으며, 이 과정을 통하여 시민사회 전체의 정치적 의식이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성숙하는 결실을 맺었다. 이처럼 국가로부터 독립된 하나의 자율적 영역으로서 시민사회가 확고히 자리잡아 가게 됨에 따라 향후 한국 사회는 민주주의를 방어하고 확대할 수 있는 주요한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셋째, 6월 민주항쟁은 정치적 기회구조를 확대시킴으로써 노동운동을 비롯한 각종 대중운동의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노동자 대투쟁과 함께 급속히 발전한 노동운동은 물론이고 학생운동도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화된 모습을 갖추게 된다. 그리하여 1980년대 후반 이후 오늘날까지 한국의 사회운동의 판도를 민주적으로 확산하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과거 사회운동의 정치적 성향은 주로 권위주의적인 정권의 억압적 지배에 대항하는 반독재 민주화 운동으로서 종교인과 지식인 집단을 제외하면 대체로 비조직적인 활동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6월 민주항쟁 이후의 사회운동은 여성, 환경, 인권, 생활, 자치 등 다양한 부문에서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훨씬 제도화되고 체계적인 형태를 취하는 경향이 높아졌다. 그리하여 노동운동의 자율성과 정당성이 제도적으로 승인을 받게되는 사회적-정치적 분위기를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여타의 각종 사회운동의 분출과 확산을 적극적으로 촉진하였다. 6월 민주항쟁을 계기로 분출하기 시작한 각종 사회세력의 운동조직화는 시민사회의 활성화에 필수적인 다원적 사회발전을 추구하게 만들어서 한국사회의 민주화를 공고히 하고 있다.

네째, 6월 민주항쟁은 사회운동의 이념적 성향과 노선을 공식적으로 분화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리하여 운동세력들 간에 시민민주주의 노선, 민족자주노선, 기층 민중노선 등으로의 분화가 이루어 졌으며, 이러한 분화는 오늘날 대별하여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의 두가지 큰 흐름으로 파악되고 있다.

결국, 6월 민주항쟁은 한국에서 위로부터 지배하는 권력기구로서의 국가에 대응하는 독립적인 영역으로서 시민들이 밑으로부터 자율성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시민사회를 역사적으로 정립하여 그 출범을 선언한 장이라 할 수 있다. 특히 6월항쟁의 전개 과정에서 화이트칼라를 중심으로 한 중간층의 사회적 역할이 뚜렷하게 부각됨으로써 향후 한국에서 국가와 사회의 민주화를 향한 사회적 세력집단으로서, 기층 민중만이 아니라, 광범위한 중간층 세 세력이 또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다. 이 점은, 다시 말해, 앞으로 한국의 민주화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간층을 핵으로한 시민세력과 기층 민중세력이 서로 협력과 연대를 통하여 시민사회의 대항력을 제고시켜야 한다는 과제를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다.

부산지역의 장구한 민주운동사에서 6월 민주항쟁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6월 민주항쟁은 우리 사회에 있어 지역운동의 역량이 전국적인 힘으로 결집되고, 나아가 하나의 통일된 사회운동으로서 한국사회의 민주화라는 보편적인 운동목표를 달성하는데 성공한 운동이었다. 특히 부산지역의 민주운동은 지도 중심의 구축과 그 역량의 축적이라는 차원에서 매우 모범적이고도 선구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부산민주항쟁의 지도부로서 <국민운동본부>는 시민과 민중의 잠재된 저항적 역량을 장기적으로 개발하고, 통일적으로 결집해 내는데 있어 참으로 소중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1979년의 부마민주항쟁으로 분출되었던 부산시민의 위대한 저항정신은 1980년의 '5·17'에 의해 배신당하고 만다. 그리하여 군부체제하에서 부산지역 민주화 운동은 쓸쓸한 시련을 맞게 된다. 이른바 '부림 사건'으로 불리우는 탄압사건으로 부산지역의 민주화 운동역량은 거의 초토화 내지 소진되고 말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림 사건의 구속자들이 출소하는 1983년말까지 이렇다 할 움직임이 부산에서 없었던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부산지역의 민주화운동이 소멸되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다. 조직의 재건을 위하여 은밀하게 지속적인 활동들을 추구하였던 작으나 매우 치열한 노력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하여 그 결집된 힘으로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이다.

부산의 6월 민주항쟁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값진 교훈은 바로 여기에 있다. 6월 민주항쟁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학생과 시민들이 힘을 모아 만들어 낸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민주화를 회구하는 부산시민의 뜨거운 열망과, 온갖 탄압과 보복에도 불구하고, 그 열망을 포기하지 않고 아래로부터 꾸준히 그리고 광범위하게 하나의 세력

으로 조직화함으로써 마침내 노도같은 시민의 힘을 창출해 낸 우리 부산 시민들의 인내와 결단의 결실인 것이다.

부산지역 민주화 운동 진영의 이러한 노력은 6월 민주항쟁에서도 특징적으로 드러난다. 우선 부산지역의 6월 항쟁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일사불란하게 전개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운동본부의 실무를 담당하였던 중간 간부들이 상호 지속적인 연대와 교류를 추구함으로써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국민운동본부의 실무자들은 1970년대 후반부터 '부림사건' 그리고 이후의 계속된 민주화 운동의 과정에서 함께 고민을 나누며 운동역량을 축적해 왔던 것이다. 이러한 성숙된 지도력과 통일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전국 대부분의 국민운동본부가 6월 민주항쟁 이후 해소된 반면, 부산지역의 국민운동본부는 '7, 8, 9월 노동자 대투쟁'에도 조직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었다.

결국 부산지역의 민주화 운동은 부산시민의 고양된 주체적 인식과 불굴의 투쟁의지와 그리고 운동지도부의 성숙된 역량과 지도력을 기반으로 하여 전개된 것이므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매우 선구적이고 모범적"이라는 자랑스런 차별성을 갖게 된 것이다.